

현대 일본에서의 혐한 감정 확산과 대중문화 콘텐츠의 관계 연구

홍순면*, 김치용**

*동의대학교 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동의대학교 ICT공과대학 게임애니메이션공학전공

e-mail : hongarius@naver.com, kimchee@deu.ac.kr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ti-Korean Emotions and Pop Culture Content in Modern Japan

Hong Soonmyeon*, Kim Cheeyong**

*Dept. of Storytelling, Graduate School, Dong-Eui University

**Major of Game Animation Engineering, Dong-Eui University

요 약

일본에서의 한국에 대한 혐한 감정의 분출은 2000년을 전후로 한 한류 열풍과 함께 본격화 되었고, 현대 일본의 대중문화 콘텐츠들을 통해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었다. 혐한 감정 확산의 대표적인 분야로는 서적과 만화 등이 있다. 일본의 혐한 감정이 현대 일본의 대중문화 콘텐츠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확산되었는지 연구한다.

1. 서론 및 연구목적

‘혐한’이란, 한국과 한민족을 대상으로 한 혐오의 감정을 나타내는 용어로 일본을 중심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현대 일본에서의 혐한 분위기는 2015년을 경계로 정점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전역으로 침투하고 있으며, 인터넷 게시판과 혐한 시위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에서의 혐한 감정의 발현은 어느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의 반일 감정과 동일하게 혐한 감정의 토양은 양국의 역사적인 사건들과 그를 둘러싼 국제관계 속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이와 같은 일본에서의 혐한 언설이 현대 일본의 대중문화 콘텐츠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연구하고, 일본의 대중문화 콘텐츠들이 일반 대중들의 혐한 감정 확산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를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자료는 대중문화 콘텐츠 중에서도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서적과 만화, 애니메이션 등 세 가지 분야를 선택하고, 이 콘텐츠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재 일본의 혐한 감정의 확산을 연구한다.

2. 배경 및 선행연구

2-1. 일본 혐한 감정의 역사적 배경

한일 양국 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갈등과 충돌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역사적으로 근대에 해당하는 19세기 중반 이후부터의 대표적인 상호 인식과 사건들을 통한 일본의 혐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의 소중화사상에 바탕 한 ‘중화문명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일본을 문명국인 조선이 교화 한다’는 전통적인 일본열시 풍조와 그에 따른 일본의 반발이다.

둘째, 1870년대를 전후하여 일본 정계에서 강력하게 대두된 조선 정벌론(정환론)과 조선의 척왜정책의 충돌이다.

셋째, 일본의 근대 계몽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가 주장한, 야만의 아시아로부터 벗어나 개화된 구미를 지향한다는 제국주의적 발상인 ‘탈아론(脫亞論)’의 대두를 들 수 있다.

넷째, 1910년의 일본에 의한 한국의 강제병합으로 말미암아 한일 국민 상호 간의 멸시 감정은 최고조에 달했다.

다섯째, 1953년 한국의 ‘독도의용수비대’에 의한 독도 상륙과 일본 순시선 등과의 교전 사건을 비롯한 이승만 정권에 의한 반공, 반일, 반중 정책의 시행 등이 있다.

2-2. 현대 일본 혐한 감정의 이유와 배경

과거에는 주류 미디어인 신문, 방송, 서적, 잡지 등에 의한 제작자로부터의 일방적인 정보 제공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기의 급격한 인터넷 보급에 따라 종래의 미디어에서는 발현되지 못했던 정서의 표현이 쉽고 빠르게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또한, 조선일보를 비롯한 중앙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 등, 한국의 언론사들에 의해 개설된 일본어 사이트와 한일통역 사이트에 의해 한국내의 일본 관련 기사를 실시간으로 직접 접할 수 있게 된 점도 크다. 현대 일본 사회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혐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9년 5월 니시무라 히로유키(西村博之, 1976~)에 의해 개설된 일본의 인터넷 익명 게시판인 ‘고칸네루(5채

널; 구 니찬네루, 2채널)'의 대두이다. 주류 언론에서는 다루어 주지 않았던 개인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인터넷을 점령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적으로는 극우보수 민족주의 성향이며, 한국과 중국 등 '반일 국가'에 대한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의 게시물이 가장 큰 비율을 점유한다.

둘째, 일본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 등의 지식재산권을 한국기업이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만화, 캐릭터, 시나리오, TV 프로그램 등에서의 표절에 따른 반발이다.

셋째, 2012년 8월 14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에 의한 독도 상륙과 일본 천황의 사죄 요구 발언을 이유로 일본 정부 및 일본국민들의 반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일본을 가상적국으로 상정한 한국국방백서의 '독도방위' 계획과 함께 '대마도 점령계획' 등, 한국군에 의한 한일전쟁 시나리오 발표에 따른 일본 국내의 반발이 있었다.

넷째, 1995년에 발생한 한신·아와지대지진, 2004년의 니가타·추에츠지진,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 등, 일본의 국가적 재난 발생에 대한 한국 미디어의 '일본, 역시 답은 천벌(天罰)에 있다!' 등의 자극적인 기사에 대한 반발이 있었고, 2011년 일본 국회의원의 독도도발 발언 등을 계기로 일본의 험한 네티즌이 밀집한 '2채널'에 대해 한국 네티즌들이 기획한 2011년 '8·15 사이버 전쟁'이 있었다.

다섯째, 2012년 일본 대마도에서 도난된 관세음보살좌상이 이듬해 한국에서 발견되는 등, 일본 국내의 한국 관련 문화재 절도 사건에 한국인이 관여하였고, 도난된 많은 일본의 문화재가 한국으로 반출된 사건이 발생되었다.

여섯째,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선포에 반발하여 한국의 마산시의회에서 6월 9일을 '대마도의 날'로 지정한다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발생한 일본의 반발을 들 수 있으며, 조선의 강제병합을 비롯하여 일본 역사 교과서, 일본군 위안부, 야스쿠니신사 참배, 가해자와 피해자 인식 등, 양국 간의 과거사 인식에 있어서 심각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상호간의 끝없는 갈등 등을 들 수 있다.

2-3. '넷 우파'의 등장

인터넷의 대중화와 함께 인터넷 상의 논의들이 집단적으로 증폭되는 경향이 생겨났다. 일본에서는 2010년을 전후로 인터넷 전자게시판 등에 우익적, 국수주의적, 국가주의적, 복고주의적인 주장을 극단적으로 펼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넷 우익(ネット右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릿쿄대학(立教大學) 연구팀과 일본의 포털사이트 야후재팬이 공동으로 2015년 4월 1주일간 정치·사회 관련 온라인뉴스 기사 1만 건과 이에 대한 댓글 수십만 건을 분석한 결과, 한국과 관련된 댓글이 가장 많은 20%를 차지했고, 중국 관련 댓글까지 합하면 25%였다. 이 중 대부분이 '험한'이나 '험중' 의식이 짙은 내용이며, 특히 모멸적인 댓글의 80%가 한국 관련 내용이었다. 또한, 이른바 '넷 우익'으로 불리는 이들이 온라인 여론을 주도한다는 분석도 있다. 1주일에 100회 이상 댓글을 다는 사람은 전체의 1%였지만, 이들 1%의 댓글이 전체 댓글의 20%였다. 특히

이들의 댓글에는 험한 의식이 짙은 단어가 많았다.

3. 일본 대중문화 콘텐츠 속의 험한 표현

3-1. 서적

험한 감정을 대중 속으로 확산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장르이다. '험한류 반일 망언 격퇴 매뉴얼 실천 핸드북'을 비롯하여 '대험한시대'를 쓴 정치활동가 사쿠라이 마코토(櫻井誠)와 '한국인의 경제학, 이것이 내화외빈 경제의 내막이다'를 비롯하여 '왜 일본인은 한국에 험한 감정을 느끼는가' 등을 쓴 평론가 무로타니 가쓰미(室谷克實, 1949~)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의 평론가들과 저널리스트들에 의해 저술된 험한 관련 서적들은 모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본 논문에서는 평론가 무로타니 가쓰미가 쓴 한국비판 서적인 '봉한론(崩韓論)'에 대해 논한다.

3-1-1. '봉한론'의 내용과 주장

저자인 무로타니 가쓰미는 시사통신사 정치부 기자로 서울 특파원의 경력도 있는 사람이지만, 19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대한 그의 시각은 변함이 없다. 그가 버릇처럼 말하는 "한국은 절대 인정하면 안 되는 나라"로 그 근거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험한 관련 출판물들이 쏟아져 나온 2010년 이후 '악한론(惡韓論)', '매한론(呆韓論)', '이것이 한국이다' 등 거의 매년 이와 같은 책들을 출간하고 있기도 하다.

2017년 2월에 발간된 본 서적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하여 세월호 침몰 사건, 대한항공 회항 사건, 한국 재벌의 붕괴 등,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와 한국인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된 내용은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 하는 민족'이고 '부모의 재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전근대적인 사회'로 '나치 독일보다 심한 세계 제일의 차별 대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도박 중독자가 많은 나라', '모든 일은 인맥과 뇌물로 해결'하는 나라로 묘사하고 있다.

저자는 본 저서의 맺음말에서 "한미군사동맹을 주축으로 한 국방, 수출 의존율이 극도로 높은 경제 등, 국가의 큰 틀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반일 주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이런 나라와는 가능한 한 사귀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공적인 것보다 사적인 부분을 우선하거나 결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비어있는 사고, 인맥과 뇌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한국형 행동양식이 일본에 확산되는 것을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1-2. '봉한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이 책 '봉한론'은 한국의 어두운 면을 냉정하게 바라본 한국 문화론적 측면도 없지는 않으나, 거의 모든 논조는 단편적인 사건이나 사실에 근거하여, "한국은 정부와 군대, 기업 할 것 없이 조선시대 이래로 부패한 나라였고,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한일 양국 간의 위안부 합의

를 거부하는 등 국제적인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사회이다. 이러한 한국과는 거리를 두고 사귀지 않는 것이 좋다”는 식이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 등, 깊이 있는 성찰이 결여된 서적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잡지와 인터넷 등의 서평을 조사해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처음 알았다’거나, ‘정말 한국은 교류할 가치가 없는 나라’라는 등의 글들이 대다수이다. 이는 한국에 대해 무지한 일본인이 그만큼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3-2. 만화

최근 만화 분야에서의 험한 표현으로 물의를 일으킨 작품은 필명 백정남(白正男) 원작의 ‘태권더 박(テコンダー朴)’과 오카다 이치카(岡田壹花)의 작품 ‘히노마루 가이센 오토메(日之丸街宣女子)’ 등의 작품이 있다. 그러나 2005년에 처음 출간된 ‘야마노 샤린(山野車輪, 1971~)’의 작품 ‘만화 험한류(マンガ嫌韓流)’ 시리즈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 만화는 2006년 2편, 2007년 3편, 2009년에 4편까지 시리즈로 발행되었고, 당시 일본의 험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누적 발행부수 100만 부를 기록하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3-2-1. ‘만화 험한류’의 내용과 주장

1990년대 말부터 급격하게 보급된 인터넷은 주류 언론에서 취급해 주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신천지였다. 인터넷의 익명성에 편승하여 그 동안 쌓이고 쌓였던 울분을 원색적인 언어로 폭발시키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이야기들 중에서 대중에게 팔릴만한 자극적인 소재를 선정하여 만화로 제작한 사람이 이 만화의 저자인 야마노 샤린이다.

‘만화 험한류’의 내용과 주장은 차례에서 알 수 있다. 제1화, 한일 공동 개최 월드컵의 이면(한국인들에 의해 더럽혀진 월드컵 축구의 역사). 제2화, 전후보상 문제(영원히 요구당하는 돈과 사죄). 제3화, 재일한국·조선인의 내력(재일조선인의 역사와 강제연행의 신화). 제4화, 일본 문화를 흠치는 한국(일본문화의 절도와 제작권을 무시한 복제품 실태). 제5화, 반일 매스컴의 위협(일본 내부에서 쏘먹는 반일 매스컴의 선동). 제6화, 한글과 한국인(자칭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 한글의 역사와 비밀). 제7화, 외국인 참정권 문제(외국인<=재일한국인>이 참정권을 가진다는 것). 제8화, 한일 병합의 진실(조선의 근대화에 노력한 일제 36년의 공과 죄). 제9화, 일본 영토 침략-독도 문제(상호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한국의 주장) 등이다.

3-2-2. ‘만화 험한류’에 대한 비판적 평가

‘만화 험한류’는 뛰어난 작품성을 가지고 있거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제작된 것은 아니다. 2000년을 전후로 일본 국내까지 불어온 열광적인 한류 열풍에 대한 반감이 생겨났고, 그런 사회 분위기를 일종의 상품화 한 것이다. 또한, 저자가 전해 들었던 지엽적인 내용을 근거로 전체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과 저자의 무지에서 오는 논리적인 오류 등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이 만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의 인터넷 게시판에서 떠돌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실 확인 없이 그려낸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3-3.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분야에서의 험한 표현 작품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일본의 화이트폭스 사가 제작하여 2011년 TV에서 방영된 ‘슈타인즈 게이트’가 일본 군국주의를 미화하고 험한 요소를 그대로 반영하였다는 논란이 있었고, 2018년 6월 ‘두 번째 인생을 다른 세계에서’로 유명한 라이트 노벨 작가 마인(まいん)의 과거 험한 발언으로 인해 애니메이션 제작이 취소되고 소설의 출판을 중단하는 소동이 있었다.

미국에서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던 일본인 히마루야 히데카즈(日丸屋秀和, 1985~)가 2006년부터 자신의 개인 사이트 키타유메(キタユメ)에서 발표한 웹툰으로, ‘국가 의인화 역사 코미디’와 그것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미디어믹스 작품군을 총칭하여 헤타리아(Hetalia: Axis powers~タリア)라고 한다. 작품군 중에서 일반 대중들로부터 가장 큰 인기를 얻은 것이 애니메이션이다.

3-3-1. 애니메이션 헤타리아의 내용

이 애니메이션은 세계사를 모티브로 하여 세계 각국의 역사, 인종, 민족, 풍속, 풍토, 이미지 등을 인물 캐릭터들이 만들어내는 사건들을 그려낸 작품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당시의 추축국이었던 이탈리아, 독일, 일본을 주인공으로 하여 상황이 전개된다. 국가 간의 사건들을 인간관계로 묘사함으로써 국제 관계를 유머러스하게 풍자한 슬랩스틱 코미디이다. 모티프는 세계사뿐 아니라 현대의 시사 소재나 캐릭터의 오리지널 에피소드도 포함되어 있다. 에피소드 중에는 극우의 시각이라고 알려진 2채널의 군사관 등을 참고한 것도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3-3-2. 한국 캐릭터 분석

이 작품의 제목인 헤타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겍쟁이+이탈리아’의 조어이다. 헤타리아에는 여자를 좋아하고 밝은 성격의 이탈리아, 근면성실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독일을 비롯하여, 70개 이상의 각 국가와 지역을 상징하는 인물 캐릭터와 서브 캐릭터가 등장한다.

한국 캐릭터는 27번째 캐릭터로 소개되어 조연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등장하는 장면도 그리 많지는 않다. 캐릭터의 성격은 밝고 활기차다. 취미는 외국 유학과 드라마 감상으로 캐나다를 좋아한다. 징병제를 염두에 두어서인지 근육질로 묘사되고 있으며, 인터넷과 게임을 매우 좋아한다. 반면, 항상 미국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중국을 형님으로 부르고 있으며 일본을 매우 싫어한다. 또, 모든 사물의 기원은 한국이라고 주장하는 캐릭터로 묘사하고 있다.

한국의 캐릭터로 등장하는 ‘임용수’는 다른 국가 캐릭터에 비해서도 비교적 밝게 그려졌다. 캐릭터의 성격 부여와 이야기의 전개에서 일부 한국인들의 불만을 살 수도 있으나, 이 애니메이션이 슬랩스틱 코미디로 분류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허용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

3-3-3. 한국에서의 헤탈리아 논쟁

헤탈리아에 대한 한국에서의 논쟁은 2009년 애니메이션 방송 결정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일본에서의 인기로 인해 한국에서도 주목 받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주된 의견으로는 한국 캐릭터의 설정이 한국을 모욕하고 있고, 전범국을 미화하고 있으며, 국가를 의인화하여 전쟁을 너무 가볍게 묘사한 위험성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중심으로 방송중단을 촉구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만 명 이상의 네티즌들이 서명하기도 했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된 시대에서의 역사적 사실들은 현재 까지도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한국에서 이 작품에 대한 비난이 있었던 것은 과거 일본에 의한 식민통치 경험과 양국 관계 정상화가 되지 않은 현실에 바탕 한 것이다.

3-4. 일본 대중문화 콘텐츠 속의 진실 논란

상기에서 살펴본 혐한을 조장하는 대중문화 콘텐츠의 내용에는 양국이 공유하는 근현대사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첫째,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의 국가 간 배상금 지불에 대한 한국인 피해자들의 개인적 대일배상청구권에 대한 논란이다. 둘째, 검토, 유도, 합기도, 다도 등의 전통 문화의 정체성 논란과 만화, 게임, 식품, 공업디자인, 캐릭터 등에서 발생한 양국 간의 지식재산권문제가 있다. 셋째, 외국어 또는 외래어로 취급할 수도 있는 일본식 한자어의 무리한 순화와 그에 따른 논란이다. 넷째, 과거 역사의 직접적인 가해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일본인들은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 반성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의 논란도 있다.

4. 결론

일본의 사회문화학자 히라타 유키에(平田由紀江)는 “전후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한 나라’이거나, ‘한국인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뭔가 호감이 가지 않는 나라’였고, 별다른 특별한 이미지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했다. 과거 한국에 대해 무지했던 일본사회가 한류 열풍을 계기로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K-Pop과 요리 등 한국 문화상품의 일상적 향유를 비롯하여 여행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민간교류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현대 일본 사회에서의 혐한 분위기는 어느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다. 중세와 근대에 있었던 침략과 식민지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항쟁과 알력을 토양으로 생성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로 일본 사회에서 잊혀져 있었던 ‘한국’이라는 존재가 2000년을 전후로 한 한류 열풍의 반동으로 되살아 난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 신문사들의 인터넷 일본어판 서비스와 번역 사이트를 통해 한국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된 점도 크다.

일본 사회는 이제까지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던 한국 국내의 여러 사정들과 드높은 반일감정을 접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반동이 혐한 감정으로 발현되었으며, 일본의 대중문화 콘텐츠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혐한 표현을 찾기가 힘들었던 다른 분야에 비해 서적에서 특이하게 많이 발견되는 이유는 적은 수의 저자가 많은 작품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사회 전반으로 널리 확산되었을 것으로 생각했던 대중문화 콘텐츠 속의 혐한 감정은 서적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애니메이션이나 소설, 영화 등에서도 혐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있다고는 하나, 스토리의 전개나 정서상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

참고문헌

- [1] 강기철, “『만화협한류』의 상업적 전략과 보수 저널리즘의 확대”, 일어일문학 56호, pp.289-307, 2012.
- [2] 금병동, “일본인의 조선관-일본인 57인의 시선, 그 빛과 그림자”, 논형, 2008.
- [3] 나카쓰카 아키라, “근대일본의 조선인식” 청어람미디어, 2005.
- [4] 박유하, “화해를 위해서-교과서·위안부·야스쿠니·독도”, 뿌리와이파리, 2005
- [5] 야스다 고이치, 야마모토 이치로, 나카가와 준이치로, “일본 넷우익의 모순-우국이 초래하는 ‘망국’의 위험”, 어문학사, 2015.
- [6] ‘한일. 연대21’, “한일 역사인식 논쟁의 메타히스토리” 뿌리와이파리, 2008.
- [7] 홍순면, 김치용, “일본의 혐한 스토리텔링 구조 연구 -‘만화 협한류’를 중심으로-”,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1권 1호, pp.154~157, 2018
- [8] Soon-Myeon Hong, Kim Cheeyo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reading of Anti-Korean Sentiment in Modern Japan and Korean Media(Mainly about Japanese Service of Korean Media)”, 7th Japan-Korea Joint Workshop on Complex Communication Science, pp.58~60, 2019
- [9] 李洪千, “出版メディアと排外主義”, 東京都市大學横浜キャンパス情報メディアジャーナル第18号, 2017.
- [10] 韓英均, “反韓と反日, 嫌韓流からみえてくるもの”, 社學研論集 Vol.16, 2010.
- [11] 齊藤慎一·李津娥·有馬明恵·向田久美子, “韓流ブームと對韓意識”, 東京女子大學比較文化研究所, 2010.
- [12] 高崎宗司, “反日感情, 韓國・朝鮮人と日本人”, 講談社現代新書, 1993.
- [13] 室谷克實, “崩韓論”, 飛鳥新社, 2017
- [14] 室谷克實, “なぜ日本人は韓國に嫌悪感を覚えるのか”, 飛鳥新社, 2018
- [15] 山野車輪, “マンガ嫌韓流”, 晋遊舎, 2005.